

<2022 소방직 가답안>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②	①	②	③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④	③	④	①	①	③	①

1.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는 모두 다섯 부족이 있으니,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이다. 본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뒤에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들이 설치한 관계(官階)에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대가, 주부, 우태, 사자, 조의, 선인이 있다. (중략) (가)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신(禊神)이라 부르며, 또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냈다.

- 후한서 -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 ④ 8조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고구려이다. 고구려에는 소노부, 계루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의 5부가 있었다. 초기에는 소노부에서 왕을 배출하였으나, 이후 계루부 고씨가 왕족, 절노부가 왕비족으로 정착되었다.

[정답 해설]

② 고구려는 남자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 살면서 일해 주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소도는 삼한의 신성 지역으로,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렸다.
- ③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으며,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 ④ 8조법은 고조선의 법률이다. 현재는 3개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생명 중시, 농경의 발달,

사유 재산 인정, 계급 사회 등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2.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군대가 군사를 네 방향으로 나누어 협공하였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 『삼국사기』 -

(나)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이라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백제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③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④ 백제가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가)는 장수왕의 한성 함락(475), (나)는 백제 성왕이 전사한 관산성 전투(554)에 대한 사료이다.

[정답 해설]

② (가), (나) 사이 시기 무령왕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은 신라 진흥왕 때인 562년이다.
- ③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은 유리왕 때인 서기 3년이다.
- ④ 백제가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한 것은 4세기 근초고왕 때이다.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여러 학생이 글을 읽어 3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갔는데, 『춘추좌씨전』 혹은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와 『효경』에 모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삼았다.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써만 사람을 선발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이를 개정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현량과
- ② 골품 제도
- ③ 독서삼품과
- ④ 상수리 제도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독서삼품과는 국학의 학생들을 독서 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해 이를 관리임용에 참고한 제도로, 원성왕 4년(788)에 실시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현량과는 조선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실시한 인재 천거 제도로, 이를 통해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 ② 골품 제도는 신라의 신분 제도이다.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정복되고 병합된 각지의 족장 세력을 왕경(王京)인 경주에 이주시킨 후, 중앙의 지배 체제 내에 편입시켜 이들 세력의 등급과 서열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립되었다.
- ④ 상수리 제도는 신라에서 실시한 지방 통제 정책으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 세력가를 일정 기간 경주에 머물게 한 제도이다.

4.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당에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 고구려가 당 태종이 이끄는 대군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가)	(나)	(다)	(라)	
관산성 전투	살수 대첩	백제 멸망	기벌포 해전	발해 건국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②

[자료 분석]

관산성 전투는 554년, 살수 대첩은 612년, 백제 멸망은 660년, 기벌포 해전은 676년, 발해 건국은 698년의 사건이다.

[정답 해설]

② 642년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했으며, 정권을 장악하였다. 안시성 전투는 645년의 사건이다. 당 태종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왔으나 안시성에서 군민이 합심하여 60여 일간이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이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는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 마침내 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5. 다음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안승의 보덕국 건국
- ② 매소성 전투의 전개
- ③ 진흥왕의 순수비 건립
- ④ 원종과 애노의 난 발생

정답 ①

[자료 분석]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왼쪽)과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오른쪽)이다.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을 계승한 현존 최고(最古)의 석탑으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왕궁리 오층 석탑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있는 석탑으로,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해설]

- ①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면서 안승을 회유하여 금마저(익산)에 머물게 하고 보덕국왕으로 삼았다(674).

[오답 피하기]

- ② 매소성 전투(675)는 나당 전쟁 당시 남침해 오던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매소성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로 추정된다.
- ③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하고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북한산비(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비봉→현재는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창녕비(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황초령비(함경남도 함흥군 황초령), 마운령비(함경남도 이원군 마운령), 가 있다.
- ④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 3년(889) 사벌주(상주)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다.

6. 밑줄 친 ‘왕’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여 년에 큰 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 땅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중략)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아들을 섬긴다면 무슨 얼굴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겠습니까. 하물며 듣자니 고려의 왕공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후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여 민심을 얻었다고 하니 하늘의 계시인 듯합니다. 반드시 삼한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 우리 왕을 문안, 위로하고 겸하여 왕공에게 겸손하고 정중함을 보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 『삼국사기』 -

- ①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고려에 귀순하였다.
- ③ 철원에 수도를 정하였다.
- ④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자료는 견훤의 사위 박영규가 부인과 고려 태조에게 귀부할 것을 의논한 내용이다. 따라서 밑줄 친 ‘왕’은 후백제의 왕인 견훤이다. 935년 신검이 반역하여 그 아우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이어 6월에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 고려에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936년(태조 19) 9월 아내와 비밀히 상의한 뒤 고려에 사자를 보내어 귀순 의사를 밝히고 왕건이 의로운 군사를 일으킨다면 내용하여 고려군을 맞이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왕건은 크게 기뻐하여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내면서 장래를 약속하는 금석지약(金石之約)으로 후일을 기약하였다. 9월에 왕건이 마침내 후백제를 칠 때 내용하여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데 공헌하였다.

[정답 해설]

- ② 견훤은 935년 큰아들 신검 일파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당하였다가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발해를 건국한 인물은 대조영(고왕)이다.

- ③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국호를 마진(후에 태봉으로 변경)으로 바꾸고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다.
- ④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은 고려 태조(왕건)이다.

7.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라에 벼슬하는 자는 바로 귀한 가문 출신의 관리들이며, 이들은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를 높인다. (중략) 나라의 재상은 대부분 훈척(勳戚)을 임명한다. 선종부터 이씨의 후손을 비로 맞이하였는데, 예종도 세자 때 이씨의 딸을 맞아 비로 삼았다.

- 『선화봉숭고려도경』 -

• 최사추는 문헌공 최충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 글을 잘하였다.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중략) 최사추의 아들은 최원과 최진이 다. 최원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상서우복야가 되었고, 최진은 문하시랑평장사가 되었다. 이자겸, 문공미, 유인자가 모두 최사추의 사위이니 문벌의 성대함이 당시에 비길 바가 없었다.

- 『고려사』 -

- ① 과거의 폐단
- ② 훈척의 소멸
- ③ 문벌의 형성
- ④ 최씨정권의 형성

정답 ③

[자료 분석]

첫 번째 자료는 고려 중기의 대표적 문벌 귀족 경원 이씨가 가문에 대한 설명이다. 경원 이씨의 대표적 인물로는 이자겸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 문벌 귀족 가문인 해주 최씨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③ 11세기 이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의 외척이 되어 80여 년간 정권을 잡았다. 이자겸은 예종의 측근 세력을 몰아내고 인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면서 그 세력이 막강해졌다.

[오답 피하기]

①, ② 과거의 폐단, 훈척(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의 소멸

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④ 최씨 정권(최충헌, 최우 등)은 무신 집권기에 형성되었다.

8. 다음 건의문이 올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엿드려 살펴보건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맹수처럼 잔인하여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들을 능멸하였습니다. 임금의 자리마저 흔들려고 했기에 화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백성들은 살길이 아득해졌습니다. 신들은 폐하의 신령스러운 위엄을 빌려 단번에 그들을 소탕하였습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오로지 태조의 올바른 법을 따르시어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시길 바랍니다. 이에 삼가 10가지 사항을 아뢰옵니다.

- 『고려사』 -

- ①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 ② 정방과 삼별초가 설치되었다.
- ③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 ④ 묘청이 국호를 대위로 정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자료는 최충헌이 명종에게 올린 봉사 10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최충헌은 무신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명종에게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건의하는 한편, 농민 항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 개혁은 호지부지되고, 그는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정답 해설]

② 정방과 삼별초는 최우 집권기에 설치되었다.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삼별초는 고려 고종 때 최우가 설치한 특수 부대로, 야별초에서 분리된 좌별초·우별초, 몽골의 포로였다가 탈출한 신의군으로 조직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1170년 무신 정변을 의미한다.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여 거제도도 귀양 보낸 후,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③ 1126년 인종 때 이자겸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이자겸의 난).
- ④ 인종 때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국호를 대위국(大爲國)이라 하고 연호를 천개(天開),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여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1135, 묘청의 난).

9.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			
지역 별 구 분	주현의 주민	직 업 별 구 분	㉠ 정호(서리·향리·하급 장교 등)
	㉡ 속현의 주민		㉢ 백정(일반 농민)
	㉣ 향·소·부곡의 주민		수공업자·상인 등

- ① ㉢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 ② ㉡와 ㉣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다.
- ③ ㉢는 ㉡와 달리 직역을 수행하지 않았다.
- ④ ㉣의 주민은 과거를 통해 하급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③ 고려 시대에는 직역 혹은 직업별로도 사회적 지위가 구분되었다. 양인은 직역에 따라 정호와 백정으로 구별되었다. 정호는 서리·향리·하급 장교 등 국가에 특정한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정은 직역을 가지지 않는 일반 농민층이었다. 정호는 직역을 세습하였으며,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 ②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수가 더 많았다.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④ 고려 시대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의 주민들은 국유지를 경작하는 농업 분야에서, 소의 주민들은 국가의 수공업 수요품을 생산하는 수공업 분야에서 무거운 역을 담

당하였다. 이들은 과거 응시 자격이 없었고, 형벌을 받을 때 노비와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또한 일반 군현의 양민과 결혼할 수 없었으며, 승려가 되는 것도 금지되었다.

1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옳은 것은?

<농서 소개>

- 1492년(성종 23)에 간행
- 곡물 이름을 이두와 한글로 표기
- 저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보고 저술
- 당시 경기도 지역의 관행 농법을 정리

- ① 구황촬요 ② 금양잡록 ③ 농사직설 ④ 농상집요

정답 ②

[자료 분석]

성종 때 간행되었다는 내용과 경기도 지역의 관행 농법을 정리했다는 내용 등을 통해 『금양잡록』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 『금양잡록』은 조선 초기의 문신 강희맹이 경기도 금양현(지금의 경기도 시흥시·광명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에 있는 묘막에 은거하여 손수 농사를 지으며 그곳 노농(老農)들과의 대화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지은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구황촬요』는 조선 명종 때 홍년이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적은 책이다.
- ③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 ④ 『농상집요』는 고려 후기에 이암이 들여온 중국 원나라의 농서이다.

11.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허적과 허견의 사가(私家)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복선군 이남은 집 재물이 허적과 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적물한 뒤에는 모두 백성을 구호해주는 비용으로 돌리면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여 인심이 물결처럼 험난한 때에 감히 송의 철종을 끌어대어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무도한 무리들이 장차 연달아 일어날 것이니 당연히 멀리 내쫓아야 할 것이다.

- ①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②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노론이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하였다.
- ④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봉당 간 대립이 발생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1680년 숙종 때의 경신환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경신년인 1680년 당시 남인의 영수인 허적의 집에 그의 조부를 위한 잔치가 있었다. 그날 비가 오자 숙종은 임금이 쓰는 천막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벌써 허적이 가져가 버렸다. 이에 노한 숙종은 남인이 장악하고 있던 군권을 서인에게 넘기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어서 서인들이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남인들이 축출되었다.

(나)는 장희빈의 아들 윤(훗날 경종)의 원자 정호 문제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1689)이다. 기사환국의 결과 서인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고 결국 사사되었다.

[정답 해설]

- ① 경신환국의 결과 허적과 윤휴 등이 사사되는 등 남인들이 실각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정여립 모반 사건은 1589년 선조 때 일어났다. 1589년에 동인인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하고 모반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었다. 서인 세력은 이를 정권을 장악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정여립 모반 사건을 확대하였고, 서인 정철의 주도 아래 수많은 동인의 인물들이 탄압을 받았다(기축옥사).

③ 노론이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한 것은 조선 후기 경종 때의 일이다. 1721년 왕의 이복동생인 연잉군(훗날 영조)이 노론의 지지를 업고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이어 노론은 경종을 밀어내고 연잉군의 대리청정으로까지 몰아가자 소론은 노론의 대신들이 왕을 능멸하는 역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종은 이를 받아들여 노론의 4대신을 탄핵하고 귀양 보냈다(1721, 신축옥사). 이후 1722년에는 소론이 목호룡을 시켜 노론이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고 고변하게 함으로써 이미 유배를 떠난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 명이 처형되고 많은 노론들이 치죄당했다(1722, 임인옥사).

④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봉당(서인과 남인) 간 대립(예송 논쟁)이 발생한 것은 현종 때이다(1659, 1674).

1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후금이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하자,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왕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조·명 연합군이 후금군에 패하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왕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피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 ① 허균이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 ②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③ 국방력 강화를 위해 5군영 체제를 완비하였다.
- ④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의 교섭을 허용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밑줄 친 ‘왕’은 광해군이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피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정답 해설]

- ① 『동의보감』은 어의(御醫) 허균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의학책이다. 1597년(선조 30)에 착수하여 1610년(광해군 2)에 완성하였고, 1613년(광해군 5)에 간행하였다.
- ②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가구마다 내던 현물 대신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1결당 쌀 12두 또는 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 재정도

호전되었다.

- ④ 광해군 때인 1609년에는 대마도주의 세사미두는 100석, 세전선은 20척으로 하는 기유약조를 체결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③ 숙종 때에 금위영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13. (가)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고 제의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가)(으)로 정하였다.

- 『승정원일기』 -

- 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 ②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③ 근대식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 ④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가)는 대한 제국이다.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내부적으로 고종이 환궁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결국,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지 11년여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 2.). 환궁한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환구 단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1897. 10.).

[정답 해설]

- ① 대한 제국은 1897년 8월 일종의 헌법으로 제정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였
- ② 대한 제국 정부는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계라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④ 대한 제국 정부는 1897년 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조약인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③ 육영공원은 188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 학교로 헐버트, 길모어 등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현직 관료와 상류층 자제에게 영어, 정치학 등 각종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다.

14.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임금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난병들을 따라 들어갔다. (중략) 민경호가 황급히 대원군을 쳐다보고 호소하되, “대감, 날 좀 살려주소!” 하였다. 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소.” 하였다.

- 『매천야록』 -

(나) 청나라 제독군문 원세개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했다. 일본 군대는 퇴각했으며 임금은 복판묘에 행차하였다. 홍영식과 박영교는 죽임을 당했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군을 끼고 도망쳤다. 임금이 환궁할 때에 원세개는 하도감에 주둔하고 있었다.

- 『매천야록』 -

- 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 ②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③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④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임오군란(1882)이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불만이 폭발한 구식 군인들은 고관의 집을 습격하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였으며,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도시 빈민들도 봉기에 가세하였다. 다음날 임오군란 세력이 궁궐을 습격하여 고관을 살해하고 왕비마저 피신하자,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갑신정변(1884)이다. 1884년 10월 마침내 김옥균과 홍영식 등 급진 개화파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살해

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뒤, 14개 조의 개혁 정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홍영식 등은 청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정답 해설]

④ 임오군란의 결과 일본은 인천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조선을 압박하여 제물포 조약(1882)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의 주둔을 인정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군국기무처는 1894년 6월에 설치되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위협 속에서 김홍집 내각은 개혁 법안을 심의 결정하는 최고 입법 기관의 성격을 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② 이만손 등의 영남 만인소가 올려진 것은 1881년의 일이다. 1880년대 초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책략』이 유포되고 미국과 수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거센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양반 유생들은 서구의 문물과 천주교의 전래로 조선의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지방의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다.

③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1885년의 일이다. 영국은 조·러 비밀 협약이 풍문으로 들려오자,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명명하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1887).

15. (가) ~ (라)의 민주화 운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부·마 민주 항쟁
- (나) 3·1 민주 구국 선언
- (다) 6월 민주 항쟁
- (라) 5·18 민주화 운동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가) → (라) → (다) → (나)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라) → (가) → (다)

정답 ③

[정답 해설]

(나) 1976년 3월 1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문익환, 함석헌, 김대중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박정희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가) 부·마 민주 항쟁은 1979년 10월의 일이다. YH 사건, 김영삼 총재 국회 제명 등으로 그동안 쌓여 왔던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부산과 마산 등에서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박정희 정부는 부·마 민주 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부산에는 계엄령을 마산에는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라)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을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이에 대항하여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추가 투입하고 광주로 통하는 교통을 통제하는 등 시위를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다)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났다.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6월에 접어들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국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16.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 (가)의 약력
-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 참여
  -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
  - 1930년 상하이에서 이동녕 등과 한국독립당 결성
  - 194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삼균주의 제창
  - 194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
  -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최다 득표로 당선

- ① 김규식    ② 여운형    ③ 안재홍    ④ 조소앙

정답 ④

[자료 분석]

(가)에 들어갈 인물은 조소앙이다.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 및, 삼균주의 제창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④ 조소앙은 1917년 중국 상하이에서 신채호, 신규식, 박은식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 발표에 참여하였고,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다. 1930년에는 이동녕·이시영·안창호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으며, 1941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삼균주의를 제창하였다. 1945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50년 5·30총선에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여 3만4000여 표로 전국 최고 득표자가 되어 제2대 국회에 진출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서울에서 납북되었다.

17.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적 이치는 고등 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며 (중략) 오늘날 우리 조선인도 세계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도다.

- ① 조선인이 발행한 신문을 검열하였다.
- ② 공출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다.
- ④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자료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의 발기 취지서(1923)의 일부이다. 1920년대에 이르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신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났다. 1922년 이상재를 대표로 하는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 각지로부터 호응을 얻어 이듬해 서울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000만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각 군에 지방부를 결성하였으며, 만주·미국·하와이 등 해외에서도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는 등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았으며, 1924년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여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려 하였다. 또한 1924년과 1925년 남부 지방의 가뭄과 전국적인 수해로 모금 운동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이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답 해설]

- ① 3·1 운동을 계기로 강압적인 무단 통치로는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제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다. 일제는 문관 총독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지만,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다.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었지만, 엄격한 검열로 통제

되어 기사가 삭제되거나 압수·정간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의 모습이다. 일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 자원을 약탈하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으며, 위문 금품을 모금하거나 국방헌금을 강요하였다. 또한 공출 제도를 실시하여 낫그릇, 낫대야, 수저, 농기구, 교회와 사찰의 종 등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이라면 가리지 않고 빼앗았다
- ③ 일제는 1912년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헌병 경찰이 우리 민족에게 매질까지 할 수 있게 하였는데, 태형령은 우리 민족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 ④ 일제는 1939년 국민 징용령을 공포하여 수많은 한국인을 군수 공장, 탄광 등으로 끌고 갔다.

18.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월 30일 오후 1시경 일본군의 전초 부대가 지나간 뒤, 화물자동차를 앞세우고 본대가 대전자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략) 한국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러 일본군을 살상하고 자동차와 우마차를 파괴해 적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중략) 4~5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본군은 130여 명이 살상되었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는 데 그쳤다.

- ① 한·중 연합 작전으로 전개되었다.
- ② 양세봉이 이끄는 부대가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③ 독립군 통합 부대가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 ④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자료의 대전자령이라는 힌트를 통해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활약한 대전자령 전투(1933)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1932)와 대전자령 전투(1933)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오답 피하기]

- ②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

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대파 하였다.

- ③ 대전자령 전투 이전의 상황이다. 1920년 12월 독립군 들은 소련·만주 국경 지대인 밀산부에 집결하여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 군단을 결성한 뒤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소련 영토내로 이동하였다. 소련으로 이동한 독립군은 1921년 6월 소련령 자유시에 집결하였으나, 소련 적색군에 의해 무장 해체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색군의 무장 해제 요구에 저항하다 많은 독립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1921. 6., 자유시 참변).
- ④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제는 만주 지역 독립군을 전멸 하려 하였다. 일제는 훈춘 사건을 구실로 만주 지역에 대군을 동원하여 독립군을 공격하였다. 북간도 지역에 있던 북로 군정서, 대한 독립군, 국민회군 등은 일본군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근거지를 떠나 허룡현과 안투현 일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김좌진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 부대는 추격해 온 일본군을 청산리 일대로 유인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청산리 대첩, 1920. 10.).

19.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 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한다.

제2조 교환을 위해 제출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한다. 화폐 감정인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3조 구 백동화의 품질, 무게, 무늬, 형체가 정식 화폐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개당 금 2전 5리로 새로운 화폐와 교환한다. (중략)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한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 ① 한국 상업 자본에 큰 타격을 주었다.
- ②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 ③ 전한국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되었다.
- ④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는 화폐 정리 사업에 해당하는 탁지부령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이다.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은 1차 한·일 협약 체결로 파견된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한국의 경제를 예측화시키는 작업이었다.

[정답 해설]

- ①,② 일본은 제1차 한·일 협약 체결(1904)로 파견된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한국의 경제를 예측화시키는 작업이었다. 화폐 정리 사업으로 한국 상인이 소유한 백동화의 상당수가 울종이나 병종으로 판정받았으며, 소액을 가진 농민은 교환하기도 어려웠다. 이로써 한국 사람들은 앓은 자리에서 막대한 화폐 자산을 상실당하였다. 이때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던 많은 회사들이 일본인에게 넘어가기도 하였으며, 조선인들이 설립한 여러 은행들이 몰락하거나 자주성을 잃게 되면서 한국의 금융은 사실상 일제에 의해 지배되어 갔다.
  - ④ 화폐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백동화5와 엽전 등을 일본 제일 은행에서 발행하는 새 화폐로 바꾸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제일 은행의 조선 지점이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이 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③ 화폐정리사업은 탁지부에서 정책을 집행하였다. 전한국은 메가타의 건의로 인해 1904년에 폐지되었다.

## 20. 다음 연설을 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울 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했습니다. (중략)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① 남북 기본 합의를 채택하였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정답 ①

[자료 분석]

서울 올림픽(1988),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등의 내용으로 보아 노태우 정부 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 노태우 정부 때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 9.)에 이어 1991년 12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박정희 정부 때에는 남북한 정부 당국이 비밀 접촉을 거쳐 1972년 7월 통일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 ③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고,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방침을 담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④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제2차 남북 정상 회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